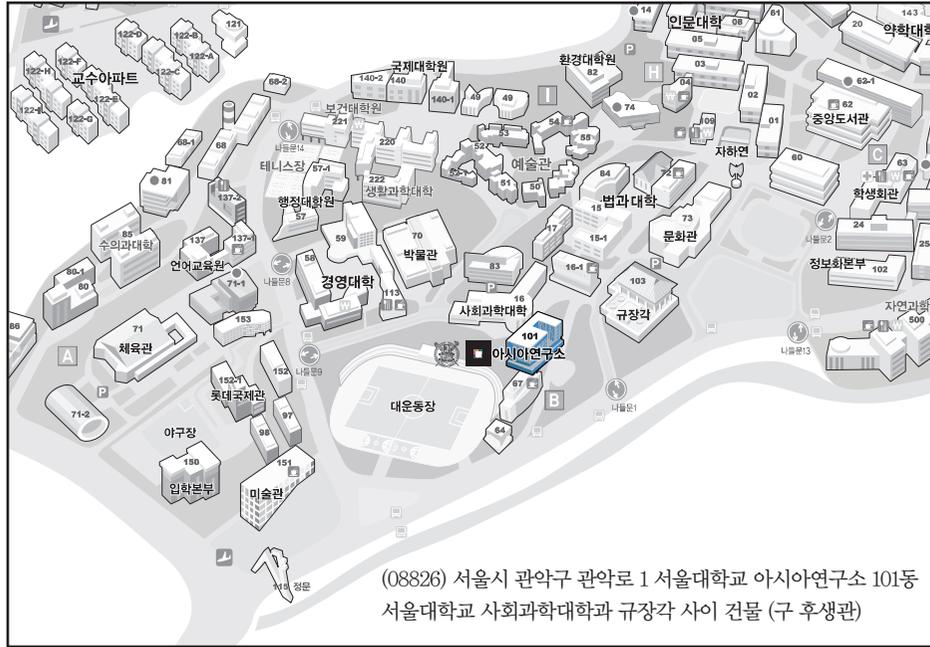


제2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 “탄핵 정국. 국가위기, 어떻게 건널까?”



###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이용시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3번 출구 → 5513번 버스 이용, 법대입구 하차  
또는 학교 셔틀버스 이용, 대학본부 하차
- 자가용 이용시  
정문에서 300m 직진 → 나들문 1에서 좌회전 → 아시아연구소 주차장

“국가정책포럼 조직위는 열려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 홍준형(행정대학원), 조국(법학전문대학원), 강원택(정치외교학부),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장덕진(사회학과), 김병연(경제학부), 송호근(사회학과, 포럼위원장).



- ◇ 일시. 2016년 12월 6일(화) 오후 1:30~6:00
-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101동 220호)
- ◇ 주관.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 초청의 말씀

제 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귀하를 모시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유례없는 위기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적 기능을 사유화한 박근혜대통령이 그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우리가 만든 정치시스템의 효율성과 유용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과, 그 결함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대통령이 법치와 국민주권 원리를 위반하였음에도 법치에 호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정부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깨고, 거짓 해명을 하고, 급기야 공적 기관의 판결을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의 공공성은 붕괴되고 정부의 공공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탄핵정국을 앞두고 잠재된 사회 갈등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에는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를 합의하고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혼란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국가와 사회의 공공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합의하고, 모든 결정과 선택의 제일 원리로 지켜나간다면 국가적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을 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탄핵정국과 국가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울대학교는 정치, 헌법, 경제, 시민정치 영역에서 가장 절실한 정책대안을 정립해서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내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송 호 근**

##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사** 송호근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환영사**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14:00~15:50 **1부 “헌법과 정치”**

사회 홍준형 (행정대학원 교수)

🔑 **정당 재정결과 대선정국 관리**  
박원호 (정치외교학부 교수)

🔑 **법치와 헌정회복의 조건**  
송석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한인섭(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옥연(정치외교학부 교수),  
금현섭(행정대학원 교수)

16:00~18:00 **2부 “경제와 사회”**

사회 김병연 (경제학부 교수)

🔑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조정**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

🔑 **시민참여와 사회안정을 위한 요건**  
김희민 (사회교육과 교수)

🗣️ **토론**

김세직 (경제학부 교수), 이정동(산업공학과 교수),  
장덕진(사회학과 교수)